경청·소통하는 장성군정…지역·공직사회 변화의 바람

11개 읍면 주민 1500명과 대화… 건의사항 210건 접수
실행가능성 검토 주민 불편 신속 해결… 진행상황 알림도
34개 부서 공직자와도 티타임… 제안사항 70% 이상 추진
하반기에도 '이장과의 대화' 등 진행 '소통 행정' 지속 확대

지난 1월 열린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한종(맨 왼쪽) 군수가 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내용을 메모를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출범 2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민선8기 장성군이 '소통과 공감'의 군정 추진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군청 전 부서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군수와 직원 간 대화'도 새롭게 추진했다. 청취한 의견은 다각도의 검토, 선별 과정을 거쳐 추진 중이다. 장성군의 '경청 행보'를 살펴본다.

◇34개 부서 공직자와 '티타임'… 건의사항 '긍정 검토'=“업무가 바쁘다 보니 자기계발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화 외국어 교육을 신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 소속 김지연 주무관이 건의하자 김한종 장성군수가 수첩을 꺼내 내용을 메모했다. 통상적인 공공기관과 정 반대 상황이다.

김 군수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 공직자들은 격의 없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김 군수에게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내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는 보기 드문 장면도 연출됐다. 3월 초까지 장성군이 운영한 '군수와 직원 간 대화' 현장이다.

김 군수는 1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군청 내 34개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직원들과 티 타임을 가졌다.

시작할 때의 서먹함도 잠시, 직원들은 업무 중에 느꼈던 개선사항을 비롯해 군정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미혼남녀 솔로탈출 워크숍' 같은 MZ세대다운 톡톡 튀는 발상도 눈에 띄었다. 60분으로 예정된 시간은 90분을 넘기기 일쑤였다.

최종적으로 취합된 건의사항은 총 133건이었다. 장성군은 이 가운데 7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11개 읍면 군민과도 대화…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공직자 소통에 앞서서는 '군민과의 대화'도 진행했다. 1월 5일 남면을 시작으로 12일 북하면까지 11개 읍면을 방문해 약 1500명의 군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한종 군수와 관계부서 공직자, 도·군의회 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한데 모여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군민들은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개선, 마을안길 정비, 주차공간 확보 등 생활 편의성 향상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다. 장성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최종 접수된 안건은 210건이다. 장성군은 이를 19개 부서에 전달한 뒤 현지 확인, 관련법 검토, 실행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군은 9건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35건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치했다.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41건은 추진 중에 있다.

◇지역·공직사회 '변화의 바람'… 소통 확대 노력도='경청 행보'에 대한 군민과 공직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지난 1월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북하면 주민 김모 씨는 “불편사항을 군에 직접 말할 수 있어 나름 만족했는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놀랐다”고 했다.

장성군은 주민들에게 향후 계획과 추진 상황 등을 수시로 알리고 있다. 또 건의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선과 보완은 장성군 공직사회에서도 시나브로 일어났다. 전화 외국어 교육 서비스와 스텐딩 책상 구비 등 '군수와 직원 간 대화'에서 나온 제안들이 하나씩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직원 사기가 고양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장성군청 총무과 고해미 주무관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준다는 데서 큰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성군의 조용한 변화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경청과 공감은 군정 발전 밑거름 소통창구 늘려 군민행복 이룰 것”

장성 변화 이끄는 김한종 군수

민선8기 장성군의 군정 목표는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이다. 화합을 통한 변화로 군민 행복을 이뤄 가겠다는 의미다. 화합을 위해선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작은 의견도 경청하고 군정에 반영하려 노력하는 이유다.

김한종〈사진〉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희망을 찾았다”면서 “소통 창구를 더욱 늘려 누구나 의견을 내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힘쓴다.

그는 “자치단체장과 꾸준히 소통하고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인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공개했다”며 “효과적인 방법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군민과의 대화'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한종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군민과의 대화'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이장과의 대화'를 갖고 추가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발언보다 경청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군민 행복을 이뤄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